

법정 스님의 무소유 가르침, 봄날을 적시다

자기만의 꽃을 피우게 하는 마음기행 맑고향기롭게 이사장 현장 스님 서평

법정 스님의 법구를 모셨던 다비장의 불꽃이 아직도 처처(處處)에서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내게 스님의 반자라는 너무나 크다. 스님의 절제된 행동과 말씀 속에 배인 간명한 가르침의 향기가 얼마나 그리운지 모른다. 나는 이 순간 스님을 나보다도 더 그리워하는 한 거사의 책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다. 스님으로부터 무염(無染)이라는 법명을 받은 정찬주 작가가 쓴 <그대만의 꽃을 피워라>가 그것이다.

지난여름 작가는 대원사로 나를 찾아온 적이 있다. 차담(茶談)을 나누던 중 내가 작가에게 무소유 사상을 화두 삼아 법정 스님의 수행자들을 순례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을 했는데, 서로 공감했던 것 같다. 그리고 보니 <그대만의 꽃을 피워라>는 나의 생각을 작가가 절절하게 받아들이고 실천에 옮긴 결과물이다. 정찬주 작가는 법정 스님과 도타운 인연을 맺은 재가제자인 동시에 깊고 꾸준한 수행과 공부로 고승 전기소설과 암자기행 산문집을 이미 십수 권 펴낸 불교전문 작가이다. 작가는 상좌스님들을 만나면서 한편으로는 만행하는 수행자처럼 묵묵히 법정 스님의 숨결이 스민 절과 암자들을 찾았던 모양이다.

이 산문집에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 가르침이 화엄의 꽃으로 피어났던 송광사 불일암, 스님이 깨우친 바를 대중들에게 아낌없이 회향했던 길상사, 수행자의 진면목을 온전하게 드러냈던 강원도 오두막 수려산방 등 스님이 정진했던 아홉 곳의 수행처에



서 건져 올린 저자의 사유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산문집의 첫 인상이 아름다웠던 까닭은 <그대만의 꽃을 피워라>라는 책제목과 '법정스님의 자기다운 영혼은 무엇인가?' 라는 부제의 흡입력이 무엇보다 컸던 것 같다. 나는 이 문장들이 선가(禪家)의 금언처럼 마음에 든다. 법정 스님의 정체성을 가장 핵심적으로 짚어낸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스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자기다움을 잊지 말라고 경책하셨다. 그것은 참나[眞我]를 찾는 동시에 걸림 없는 자유에 이르는 길이라고 설하셨다. 중생들은 인신, 부귀, 권세, 영화, 출세 등 얼마나 많은 세속적 가치에 둘러싸여 있는가.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자기다움 없이는 한낱 허깨비에 지나지 않는 법이다. 이것을 두고 집착하고 다투는 시비의 사연들이 참으로 어리석지 아니한가.

저자는 법정 스님이 늘 침묵을 당부하셨던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 저자는 입을 다무는 것만이 아니라 시비를 가리고 분별하려는 마음까지도 쉬게 하는 것이 진정한 침묵이라고 말한다. 침묵은 자기다운 영혼을 바라보는 행위다. 스님이 불안전한 중생을 위해 맑고 향기로운 글로 소통하셨던 것 역시 자기다운 개성과 인간성 회복을 위한 기꺼운 축원(祝願)이 아니었을까. 각자 주어진 삶을 자기답게 활짝 꽃피우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가장 위대한 축복이라는 스님의 가르침을 작가는 자신이 내딛는 걸음 걸음으로 순일하게 전한다.

그대만의 꽃을 피워라 | 정찬주 지음 | 열림원 | 1만5000원



스크린으로 보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 영화 '법정스님의 의자' 5월 12일 개봉

2010년 개봉된 '울지마 툰즈'에 이어 '내 이름은 칸', '바보야' 까지 극장가에는 종교를 소재로 다룬 영화들이 연이어 상영되고 있다. 특정 종교에 관계없이 영화에서 말하는 종교적 가르침과 종교인들의 삶의 이야기는 이 시대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살아생전 '무소유'라는 위대한 가르침을 남기고 떠난 법정 스님의 일대기가 영화로 만들어져 사람들의 관심이 또 한 번 모아진다. 휴먼 다큐멘터리 영화 '법정스님의 의자' (감독 임성규)는 5월 12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배우 최불암이 내레이션으로 참여해 영화는 개봉 전부터 화제가 됐다.

영화 제목이자,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의자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이 깃든 상징적 물건이다. 일명 '배배용 의자'라 불리는 이 의자는 법정 스님이 영화 '배배용'을 보고 영감을 얻어 만든 것. 참나무 장작재비로 만든 이 의자는 법정 스님이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고 참된 행복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휴식과 치유의 의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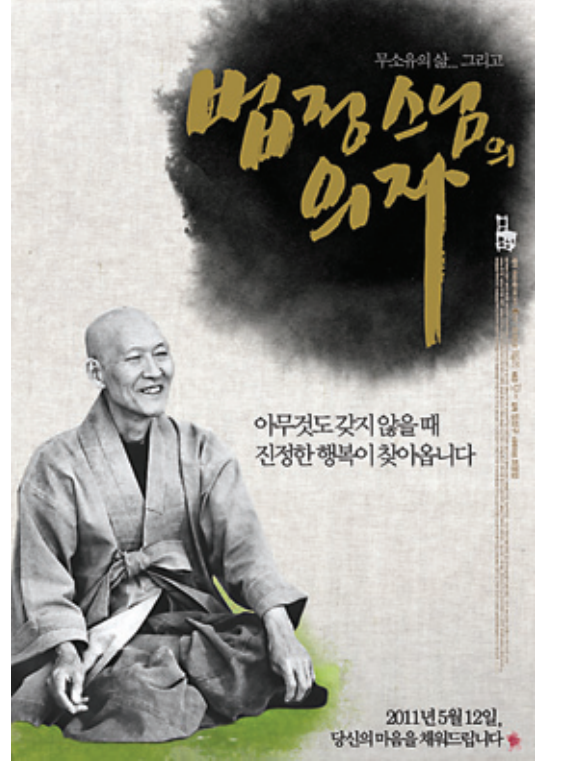
법정 스님은 승려이자 문필가로 평생을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며 정빈의 도를 따랐다. 영화 '법정스님의 의자'는 스님이 출가하게 된 이유, 그를 정빈의 삶으로 인도했던 효봉 스님과 그밖에 인연이 된 사람들과의 일화들이 담겨있다. 영화는 스님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스님이 말하는 무소유 정신을 전한다.

법정 스님은 많은 이들에게 정신적 위안과 휴식을 전해주며 행복의 삶으로 인도했다. '법정스님의

의자'는 그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을 깊은 여운을 남기며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 준다.

"가치 있는 삶이란, 욕망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의미를 채우는 삶이다."

영화는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모두에게 진정한 행복을 일깨워 주며 험한 세상을 헤쳐 나갈 용기와 희망을 선사한다. 법정 스님이 말하는 참된 행복과 무소유에 대한 가르침이 따스한 봄날의 햇살처럼 감동으로 다가온다. 이은정 기자



윤남진 특필기고

익숙한 이야기 구조로 설득하라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한 달에 수 십 회의 크고 작은 회의를 한다고 한다. 문제의 발견과 해결책의 수립, 해결책의 실행 점검,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것이었는지에 대한 평가, 해결책이 효과가 없었을 경우 원인의 규명 등을 위한 다양한 회의가 있다. 그때마다 누군가는 책임자가 돼 먼저 아이디어를 정리해 내놓고 얘기를 꺼내야 토론이 시작된다. 프레젠테이션은 이처럼 다양하고 중요한 용도로 활용된다.

책의 저자는 '7장의 슬라이드로 끝내는'이라는 제목에서 느끼는 것처럼 간결함을 추구하면서도 그 간결함의 배경으로, 이야기구조화를 통해 완벽을 추구하는 프레젠테이션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토리텔링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은 이야기

구조를 갖는 간결하면서도 완결적인 의사전달(설득) 방법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러면 왜 7장의 슬라이드로 끝내야 하고, 이야기 구조이어야 하는가? 저자는 그 이유를 뇌의 기억능력과 기억방식에 대한 인지과학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설명한다. 사람들은 1초에 약 1000건 이상의 책에 해당하는 정보를 스캐닝하고, 필요할 때 다시 불러다 쓸 수 있게 수천 개의 표상으로 정보를 저장한다. 하지만 어떤 정보를 기억 속에 담아둘지 결정하는 단기 기억의 처리 속도는 1초에 18비트, 단 기기에 답이 될 수 있는 요소는 7개 뿐이라는 것이다. 일례로 주민번호, 통장 계좌번호를 외을 때, 한 번에 한계치인 '7'을 넘는 정보를 외면 전체 메시지를 모두 잊어버리므로 '7'이내의 정보그룹으로 묶어서 기억한다는 것. 이럴 경우 (-)가 정보그룹을 구분해주는 기호 역할을 한다. 또한 표상의 예

로 대표적인 것은 개념, 습관, 두려움 같은 것들인데, 사람들은 새로운 데이터가 기존의 표상과 일치하면 수용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도전과 저항을 하게 돼 설득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인간의 뇌는 사실이 아닌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어졌고, 오래 전부터 인류는 스토리가 아이디어와 사실을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 저자는 '성공 스토리의 5단계 구조'를 프레젠테이션에 구조화해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일종의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제-핵심갈등-긴장감-전환점-해결책'의 5단계 구성이다. 저자는 이 5단계를 이야기 구조로 7장의 슬라이드로 편제할 것을 제안한다.

도전하고자 하는 과제는 무엇인가?(핵심갈등) → 어떻게 이런 상태가 되었는가?(배경스토리) →

무언가를 하면 어떻게 될까?(긴장감의 조성) → 핵심통계 등으로 긴장감의 강화 → 갈등해결을 위한 선택안의 제시 → 해결책의 제시 → 그런 아이디어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질문에 대한 추가 스토리)

필자는 최근 어느 창업공모사업에서 프레젠테이션 창업기획서 등을 접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자신의 강점을 제대로 전달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고, 정보가 많고 슬라이드가 화려한 것 보다 간명하면서 진정성이 있는 프레젠테이션이 의사소통과 설득에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불교는 대체로 공(空)에 기초해 현실 세계가 마음에 의해 가립(假立)된 것으로 보고 그 실제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음으로서 번뇌를 떨쳐내고 가르친다. 반면에 서양에서는 인지과학의 성과, 신화와 문화 같은 것이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으로 부단히 도구화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둘이 극단으로 가면 결국 서로 만나게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 스토리텔링 프레젠테이션 | 풀 J. 켈리 지음 | 멘토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연구위원장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정토
2	한 권으로 읽는 법학경	보경	민족사
3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4	붓다의 치명적 농담	한형조	문학동네
5	백일법문(상)	성철	정경각
6	소설 무소유	정찬주	열림원
7	선방일기	지허	불광출판사
8	이판사판 화엄경	성법	정우서적
9	한권으로 만나는 인도	이병욱	너울북
10	초기불교이해	각북	초기불전연구원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주얼드림 은(銀)의 모든 것

주얼드림은 은(銀) 99%로 만든
염주 · 단주 · 금강저 · 반지 · 목걸이 · 핸드폰줄 ·
백옥 · 청옥 · 자수정 · 호한석 등 기타 다양한 제품생산 기업입니다.

제품소개를 지면으로 다하지 못하오니
연락주시면 책자(카다록)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얼드림(석도) JEWELDREAM · 본사 공장 및 영업부 :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793-2번지
031)969-9495 / 070-4128-9495 / 011-441-9495

인터넷 쇼핑몰 NAVER 주얼드림 검색 www.jeweldream.co.kr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상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중요합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연불상!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